## 설문조사 배경

- 2022년 4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.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가 지연되고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급등,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보험산업은 또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함
  -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봉쇄정책으로 국제 공급망은 차질을 빚고 있으며, 에너지, 광물,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.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 에너지와 기타 원자재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됨
  -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 하였고, 한국은행 또한 2022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, 급격한 시중금리 상승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
- 또한 보험산업은 2023년 IFRS17과 K-ICS 등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전략적 노력이 요구됨
-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각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 진단, 제도 및 환경 변화 대응 전략, 영업전략 변화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진행하였음
  - 보험연구원의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불투명했던 2020년 처음 시도되었으며, 2022년 3회째를 맞고 있음
  - 이번 설문에는 총 42명의 CEO 중 38명(생명보험 22명, 손해보험 16명)이 응답하였으며, 응답률은 90%이고 응답한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91.3%임
  - 본 설문은 대부분 척도형, 단답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3순위까지 묻는 순위형 문항은 순위별 가중치 점수를 부여하여 분석함
    -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중요도를 묻는 질문은 1순위 0.5점, 2순위 0.3점, 3순위 0.2점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화한 후 단답형과 같이 분석함
-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가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보험산업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함